

# “1000원 법보시로 이웃에 희망을”

보시에는 대표적으로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보시를 하는 이가 수승한 공덕을 쌓는 이유는 법보시를 받는 이로 하여

금 스스로 깨어나 무명을 밝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667명의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해 군법당·교도소·경찰서·교육기관 등 894곳에 1363부의 현대불교신문이 발송됐습니다.

## 교도소·군법당·병원 등 894곳 전달

### 바른 삶 살게 해주는 좌표역할

# “무거웠던 한 해, 현대불교신문 보며 참회”

경○○씨 (군산 장애인 교도소)

# “수행도 점검하고 불교 외 분야 두루섭렵 좋아”

연꽃마을 밖모 어르신

무겁고 힘들었던 올 한해 법보시를 받아 구독하기 시작한 현대불교신문 덕분에 제 삶에 부처님의 진리가 배어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문을 통해 대행 스님 등 여러 큰 스님의 법문을 듣게 돼 행운이라 생각하며 참회하면서 출소하는 그 날까지 선행하면서 성불하겠습니다.

현대불교에 연재되는 글들을 읽는 재미로 시간을 보냅니다. 신문이 도착하면 불교계 종합소식을 읽은 뒤 ‘선지식을 찾아서’ ‘믿음과 닦음’ ‘함께 가요 강의실’ ‘길을 묻는 이에게’ 등을 주로 읽습니다. 조주 선사와 제자의 문답 해제를 보며 나의 수행도 점검하고 큰스님들의 법문을 읽으며 가슴에 새길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함께 가요 강의실에는 불교미술, 문화, 천문학, 과학 분야 등 불교 외의 분야도 다루고 있어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전○○씨 (공주처로감호소)

여기 있는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읽게 됐습니다. 큰스님들의 법문과 수행 정보, 불교소식 등을 접해서 좋고 특히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라는 코너가 제 가슴에 너무나 와 닿아 작년에 정기구독을 신청했습니다.

# “뒤늦게나마 불교 귀의 다행”

김○○씨 (여주교도소)

보내주신 신문은 동료들과 돌려가며 잘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불교에 귀의할 수 있기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더욱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출소하게 되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보시 발송처

구분	발송처	발송처	발송부수
경찰	경찰서	164	168
	감별소	1	3
	교도소	68	263
교회기관	교정청	1	3
	구치소, 감호소	13	82
	소년원	10	30
	군법당	315	398
군부대	군병원	10	50
	기업복지재단	6	6
복지단체	노인복지	23	24
	복지관련대학	30	30
	복지단체	45	46
	복지협의회	4	4
	부랑인복지	3	3
	아동복지	23	23
	의료기관	15	61
	장애인복지	10	10
	지역복지	20	20
	청소년복지	10	10
관공서	관공서	8	14
	문화재	8	8
교육기관	박물관/문화재연구소	8	8
	불교학사회	107	107
합계	23건	894	1363
1년 합계			70,356

## 1구좌 1000원으로

###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히세요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700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해 매주 1363부의 신문이 군장병·교도소 수행자·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00여만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사구계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大千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관리부로 전화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전화주세요)

#### #법보시 동참 계좌번호(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38-25-0008-365

농협 053-01-269050

####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관리부 (02)2004-8200(대표) (02)2004-8212(직통)

팩스: (02)737-0697

강덕순 강명욱 강명자 강민정 강수욱 강순희 강승민 강영내 강옥섭 강은심 강경아 강종구 강준계 강태욱 강태화 강향진 강연혜 계미영 고경옥 고재숙 고필선 공병길 공주지원 공평근 광명순 광순정 광우진 광은아 광춘자 광주지원 구명보 구자삼 권경숙 권경자 권두상 권명아 권미경 권익중 김강산 김경숙 김경용 김경화 김경희 김계숙 김교도 김규순 김규연 김근숙 (김부진행) 김금옥 김기석 김기성 김기홍 김나래 김나리 김나영 김남규 김남우 김다정 김덕순 김동민 김동찬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윤 김미래 김미리 김미원 김민재 김민지 김반옥 김병일 김병희 김봉란 김봉애 김비연 김상구 김선녀 김신아 김선엽 김선옥 김선임 김성길 김성수 김수옥 김숙자 김숙희 김순교 김순남 김순복 김순분 김순희 김승재 김승호 김승훈(2) 김진숙 김안숙 김연수(2) 김영선 김영성 김영숙 김영애 김영에 김영옥 김영의 김영자 김영출 김영팔 김영현 김영환 김옥선 김옥수 김옥자 김용만 김용범 김용석 김용순 김용호 김윤경 김윤관 김윤성 김윤자 김은기 김의식 김인순 김인태 김장원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정규 김정단 김정덕 김정렬 김정석 김정아 김정은 김정은 김정현 김정현 김정환 김중미 김중보 김중영 김중철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김진금 김진선 김진영 김장연 김재란 김철수 김철중 김춘희 김태수 김태운 김학수 김학수 김한구 김한솔 김향숙 김현국 김현진 김현진 김현진 김현화 김형중 김화영 김화일 김효래 김효래 김효상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나양근 나양근 남선자 남주희 노성일 노성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승문화 단영숙 대지행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도이환 도태순 류지연 류진준 류해창 목포지원 문경숙 문수홍 문숙희 문영희 문임숙 문정희 민경애

## 현대불교 법보시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민미자 민정원 박건용 박경국 박경주 박경애 박경옥 박경자 박경환 박경희 박공민 박귀자 박기숙 박기임 박남순 박말미 박명란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근 박봉기 박봉순 박봉영 박상돈 박상섭 박상현 박성준 박수경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순자 박순희 박순목 박연숙 박연신 박영숙 박영준 박영준 박옥경 박옥남 박옥옥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선 박장미 박장미 박재서 박정노 박정부 박정숙(2) 박정자 박정희 박종임 박종희 박주찬 박주호 박준용 박지연 박진우 박찬 박철홍 박춘미 박춘봉 박태근 박태수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주 박현주(2) 박형숙 박형재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화재 방명극 방명섭 방미애 방순자 방정수 방재순 배광자 배민화 배삼순 배영숙 배원선 배정임 배경호 배규현 배영규 백영규 백지은 백훈규 법천스님 변영희 봉현주 상현스님 서경자 서귀희 서미옥 서영주 서영호 서예숙 서의숙 서정우 서정자 서호준 석영수 선덕스님 설정수 성민자 성불사주지스님 송호준 송문영 송문철 송중현 송동호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정구 송중화 수선화보살 신남선 신덕신 신동호 신상근 신선자 신수영 신수호 신영찬 신영희 신용래 신용순 신정우 신조현 신주희 신창순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숙희 심영애(2) 심영자 심원식 심원보 안광기 안병용 안병태 안선환 안은희 안정은 안중희 안중준 안호진 양세옥 양순조 양연숙 양연희 양영

모 양영순 양익수 양현주 양홍용 양경미 양재옥 양재옥 양태영 양종희 양홍수 오강욱 오경환 오광자 오미덕 오병진 오병덕 오병진 오상숙 오승훈 오신재 오용근 오원중 오윤서 오재영 오정애 오지은 오창순 옥영식 옥석천 우동렬 우림사 우병선 우지애 우진규 우춘자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상재 유영미 유재기 유지연 유지호 유지근 유태선 육성희 윤기홍 윤병덕 윤복순 윤석범 윤순화 윤여경 윤영숙 윤오인 윤정연 윤정일 윤재남 윤준매 윤현숙 윤희희 이강만 이강민 이강희 이경우 이경남 이경애 이경자 이광수 이광훈 이국부 이군자 이규달 이근기 이근혜 이기덕 이기수 이기승 이기환 이나은 이나영 이대선 이대성 이동구 이동주 이대준 이대진 이명숙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미라 이미화 이민서 이병태 이보편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숙 이상순 이상은 이상태 이상수 이상표 이수옥 이순덕 이순덕 이순자 이순희 이순남 이양희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연주 이영득 이영숙 이영애 이영자 이영희 이예은 이옥순 이왕규 이왕진 이왕범 이왕재 이우순 이우유 이우진 이우환 이원화 이원상 이원호 이원희 이윤경 이은자 이은희 이이수 이점오 이정남 이정녀 이정순 이정식 이정안 이정옥 이정일 이정민 이정자 이정조 이정현 이종락 이종섭 이종성 이종욱 이종의 이종협 이주복 이준구 이준범 이준기 이지연 이진선 이진순 이철현 이춘근 이춘도 이춘

자 이춘자 이춘선 이한희 이해혜 이해순 이향림 이향순 이현숙 이형선 이화자 이훈노 이희숙 이희순 이희영 이희정 이진성 임경희 임미순 임성환 임연미 임연희 임옥빈 임용식 임재철 임재환 임점순 임정숙 임종구 임춘희 임형준 임희석 자현스님 장미숙 장미자 장성윤 장성호 장영남 장영철 장재원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경희 전계영 전명국 전미영 전병수 전유신 전은희 전재호 정갑일 정경남 정구순 정규열 정금란 정금자 정명자 정미자 정분미 정영수 정영숙 정영신 정영희 정운경 정은영 정인순 정인자 정정에 정창남 정하석 정학진 정해순 조공옥 조대영 조민규 조성준 조세은 조영석 조재규 조점기 조정혜 조정희 조지환 조창희 조현숙 조현정 주미숙 주정숙 주현순 지경애 지민정 지혜선 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영숙 차민영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보살 천영기 천무스님 최갑식 최미진(영가) 최미희 최복림 최복순 최분태 최순옥(2) 최영숙 최원주 최윤희 최은희 최재순 최재원 최정기 최종열 최종원 최주명 최주선 최창숙 최태영 최태준 최학우 최현창 최희숙 최희승 탁순태 태순덕 하미경 하미희 하재한 하정희 하태선 한경규 한기영(2) 한기준 한동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한마음선원목포지원 한마음선원안양분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한마음선원진주시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한세진 한승균 한승화 한영순 한영순 한예리 한윤진 한은섭 한인식 한재희 한정훈 허두련 허명범 허미옥 허복영 허수자 허후자 허태영 허태환 현미숙 호진스님 홍순 홍승덕 홍예순 홍필자 화명선원 화정스님 황경숙 황금영 황늘철 황성미 황수진 황순수 황순희 황용숙 황인숙 황인형 황태숙 효원스님 익명

##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증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구입문의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